

출판계
톺아보기

최 근 미국의 검색 사이트 구글(google.com)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library project)를 통해 저작권이 소멸한 고전들을 PDF파일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대학, 옥스퍼드대학, 미시간대학, 뉴욕공립도서관 등의 장서를 스캔해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학생들 혹은 교수들이 밑줄 긋고 메모한 것까지 일일이 볼 수 있어 독자들에게는 서서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들이 중형무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종이책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이상호 의원은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출판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83개의 출판사가 응답했는데, 출판계의 현 위치와 출판산업 진흥 방안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도서관 증설, 도서 구입비 증액해야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

위기의 출판산업, 해법을 찾을 것인가

열린우리당 이상호 의원 '출판산업진흥을 위한 출판계 설문조사'
도서관 증설, 도서구입비 증액, 도서정가제 확립이 최우선 과제
유통 무질서·비합리성, 출판정책 미흡..., 도서관 도서 구입비 늘려야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출판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18개 출판사가 1순위로 '도서정가제 확립'을 들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확립을 2순위와 3순위로 지적한 출판사들은 각각 14개사와 4개사여서, 순위별 응답건수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15.1%).

출판계 최대 현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서정가제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각종 도서관 증설 및 도서구입비 증액'이었다. '도서관 증설, 도서구입비 증액'은 1순위에서는 13개사만이 응답했지만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24개사와 23개사가 응답하면서 순위별 응답건수를 종합한 결과에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상호 의원실은 설문 결과에 대해 "출판산업의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공공수요 창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출판사들은 '학교 독서교육 강화' (14.3%, 순위별 응답건수 종합, 이하 동일), '국민독서운동' (12.2%)과 '출판유통 현대화 지원' (12.2%), '출판 전문인력 양성' (7.8%), '출판통계 시스템 구축' (4.1%)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소수의견으로는 출판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출판윤리 심의규제 완화, 출판관련 단체의 시행산업 지원, 서점 지원방안 마련, 조사연구 활동지원 등이 있

출판계 톺아보기

었다. 이상호 의원 측은 “많은 출판사들이 국민독서운동 전개와 학교 도서교육 강화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독서 습관의 정착을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역시 설문조사 답변에 그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정부의 출판진흥정책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1개 출판사 중 25개 출판사가 ‘매우 불만족’ (30.9%), 30개 출판사가 ‘대체로 불만족’ (37.0%)이라고 응답해 70%에 가까운 출판사들이 정부의 현행 출판진흥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보통’ (25.9%), ‘대체로 만족’ (6.2%)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출판사가 한 곳도 없어 정부정책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불만족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말하면서 바탕이 되는 ‘출판’이라는 인식이 정책 수립 및 집행자에게 없다” “출판의 경제적 효과에 집착해 문화적 기능 및 사회 전체의 창의성 유발 수단으로서의 출판을 경시한다” “모든 콘텐츠의 원천인 책에 대해 미시적이고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인식”이라고 대답했다. 이상호 의원측은 “많은 출판사들이 정부가 출판산업에 대해 지식문화산업의 기반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대체적으로 긍정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출판계 내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출판사들은 출판산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1순위에서 ‘출판 유통의 무질서 및 비합리성’ 과 ‘제도적인 출판정책의 미흡’을 꼽았지만 1·2·3순위를 종합한 수치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저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20.6%). ‘제도적인 출판정책의 미흡’은 20.2%가 응답했고, ‘출판유통의 무질서 및 비합리성’ (17.3%)이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국 세 가지 문제점이 출판산업 혹은 출판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인식이 출판계에 팽배함을 보여준 수치이다. 이상호 의원실은 이 결과를 두고 “제도적인 출판정책의 미흡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이는 현재 출판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1순위 응답건수로 도서수요 부족이 많고, 종합적으로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저조를 꼽은 것으로 보아, 민간수요와 공공수요 모두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정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81개 출판사 중 51개 출판사가 ‘매우 필요하다’ (63.0%)고, 18개 출판사가 ‘대체로 필요’ (22.2%)고 응답해 전체 69개(85.2%) 가칭 출판진흥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통’ (7.4%), ‘대체로 불필요’ (4.9%), ‘매우 불필요’ (2.5%)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출판진흥정책의 미흡이 출판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는 출판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 이상호 의원실은 출판진흥기구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자체에 대해 출판계 전체가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판진흥기구가 불필요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은 문항에 대해 출판사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기존 출판관련 조직의 옥상옥에 대한 우려, 유명무실의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측은 “기구가 근본적으로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잘못 운영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출판진흥기구가 설립될 경우 어떠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도 있었는데, ‘출판진흥정책 개발’ (29.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이끌어 냈다. ‘독서인

구 확대’ (25.6%)와 ‘산업인프라 구축’ (23.8%)도 출판진흥기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응답했다. ‘자금과 마케팅 등 기업경영 지원’ (13.1%), ‘산업시장 정보 제공’ (5.4%), ‘글로벌 디지털 환경 대응방안 마련’ (3.0%)이 그 뒤를 이었다.

우상호 의원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흥에 대한 정책기능에 매우 중요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기능 및 유통 현대화 등 출판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기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취재·정동석 기자

□ 설문 문항

※ 먼저 귀 출판사의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1. 귀사의 설립(등록/신고)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설문2. 귀사에서 가장 주력하는 출판 분야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 | | |
|-----------------------|-------------|---------|
| 1) 일반단행본(문예·교양·실용서 등) | 2) 전문·학술도서 | 3) 아동도서 |
| 4) 학습참고서(학습지·참고서 등) | 5) 백과·전집 | 6) 만화 |
| 8) 전자출판물 | 9) 기타 _____ | 7) 잡지 |

※ 다음은 출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3. 귀하는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 | |
|---------------------|---------------------|-------------|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3순위 : _____ |
| 1) 출판사의 영세성 | 2) 출판사의 기획력 부족 | |
| 3) 양질의 출판원고 부족 | 4) 출판유통의 무질서/비합리성 | |
| 5) 도매상 기능의 미약 | 6) 서점의 영세성 및 전문화 부족 | |
| 7) 도서수요의 부족 | 8)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저조 | |
| 9) 전문인력 양성 체계 미흡 | 10) 출판연구 개발 부족 | |
| 11) 출판 관련 단체의 역할 미흡 | 12) 제도적인 출판정책의 미흡 | |

설문4. 그렇다면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출판정책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 | |
|--------------------|--------------------------|----------------|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3순위 : _____ |
| 1) 출판통계 시스템 구축 | 2) 출판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 |
| 3) 전자출판 육성 | 4) 출판유통 현대화 지원 | |
| 5) 출판 전문인력 양성 | 6) 출판윤리 심의·규제 완화 | |
| 7) 국민독서운동 전개 | 8) 도서정가제 확립 | |
| 9) 출판관련단체의 시행산업 지원 | 10) 각종 도서관 증설 및 도서구입비 증액 | |
| 11) 서점 지원 방안 마련 | 12) 조사·연구 활동 지원 | 13) 학교독서 교육 강화 |

설문5. 지금까지 정부의 출판진흥정책에 만족하십니까?

- | | |
|-------------|--------------|
| 1) 매우 만족하다 | 2) 대체로 만족한다 |
| 2) 보통이다 | 4) 대체로 불만족하다 |
| 5) 매우 불만족하다 | |

설문5-1.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 출판진흥위원회(가칭)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6. 귀하는 출판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법정 출판진흥기구 설립(가칭 출판진흥위원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대체로 필요하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불필요하다 |
| 5) 매우 불필요하다 | |

설문6-1.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설문7. 진흥기구가 설립될 경우 어떠한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선택 가능)
- | | |
|-----------------------|---------------|
| 1) 산업인프라 구축(현대화 등) | 2) 진흥정책 개발 |
| 3) 기업경영 지원(자금, 마케팅 등) | 4) 산업시장 정보 제공 |
| 5) 독서인구 확대 | |
| 6) 글로벌 디지털 환경 대응방안 마련 | |
| 7) 기타 _____ | |